적조방제 모의훈련.

"적조 피해 막자"… 완도서 방제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전남도·완도군
모의훈련 통해 실전 대응 능력 키워

바다의 불청객,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한 적조방제 훈련이 완도해역에서 실시됐다.

전남 완도군은 9일 이달 하순부터 적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일 완도군 신지면 송곡 해상에서 적조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완도군이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관공선 7척, 어선 38척이 동원돼 적조방제 역량 강화와 실전 대응 능력을 키웠다.

이번 모의훈련은 송곡 해상에 적조생물 농도가 ml당 700개체 이상 출현하면서 '적조 주의보' 단계가 발령된 것을 가상해 진행됐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예찰 결과 적조생물이 어장으로 접근함에 따라 어류 가두리를 안전 해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적조생물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황토와 머드스톤을 살포했다.

또 양식 어류 폐사 방지를 위해 조피볼락 2000마리를 방류하는 등 적조 발생 상황과 똑같은 실전훈련을 실시했다.

정석호 완도부군수는 "적조 방제용 황토 2만4000t을 확보하고 적조 방제 장비를 점검하는 등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김남중 기자 5555knj@

전남 무안 신도시 부동산도 '꽁꽁'

공공기관 잇따라 입주해 거점 부상
공급과잉·경기침체 겹쳐 가격 폭락

전남도청 등이 입주한 무안 남악신도시. /무안군

전남도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신도심으로 자리잡은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안 남악의 부동산 시장이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거래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마저 끊겼다.

이 곳은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한 이후 전남지방경찰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4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전남 서부권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안군은 삼향읍 남악리 인구만도 3만명이 넘어서면서 남악리를 삼향읍에서 분리해 남악읍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격이 1년여 전에 비해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악 A아파트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3억원이 넘던 거래가가 최근 들어서는 2억5000만원선으로 5000만원이 떨어졌다.

인근 아파트 대부분이 최고가를 형성했을 때와 비교해 수천만원이 떨어졌다는게 부동산 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 유입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남악을 비롯한 인근 목포시 등의 아파트 건설이 늘어난 공급 과잉과 경기침체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남악 인근 오룡지구는 현재 3200세대가 건설 중에 있으며, 목포와 무안을 합치면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주거행태로 자리잡은 대규모 오피스텔도 남악신도시 등에 잇따라 건축되면서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오히려 매입을 추진하는 실수요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남악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매입은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가격이 떨어진 시기를 기회삼아 평소 선호한 아파트 매입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무안=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고창군, 지역 특산품 활용 명인 발굴 나서

농식품 경쟁력·차별성 갖춰

고창군 청사.

전북 고창군은 지역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농·식품 명인 발굴에 나선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식품명인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농·특산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명인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다.

신청자는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여부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고창군 농·식품 명인이 지정된다.

지정된 명인에게는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 교부는 물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맛 집 지도 등재 및 추천 등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고창만의 명인을 발굴해 고창 농식품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출 계획이다"며 "농업과 생명식품산업을 연계해 가치사슬을 넓혀 농업소득의 증대와 함께 명실상부한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로써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봉채영 기자

익산시 '청년층 유입' 국가산단 변화 도모

노후 산단 재생사업·고도화 병행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최첨단 구축

익산시청 전경. /뉴시스

전북 익산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시설 개선을 통해 젊은 산단으로의 변화를 도모한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심권에 조성된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을 병행한다.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된 국가산단에는 오는 2024년까지 약 4300억원이 투입돼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현대화하고 노후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단지 내 공원, 유휴공간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국가산단은 인공지능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가로등·주차 시스템 등도 도입돼 청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구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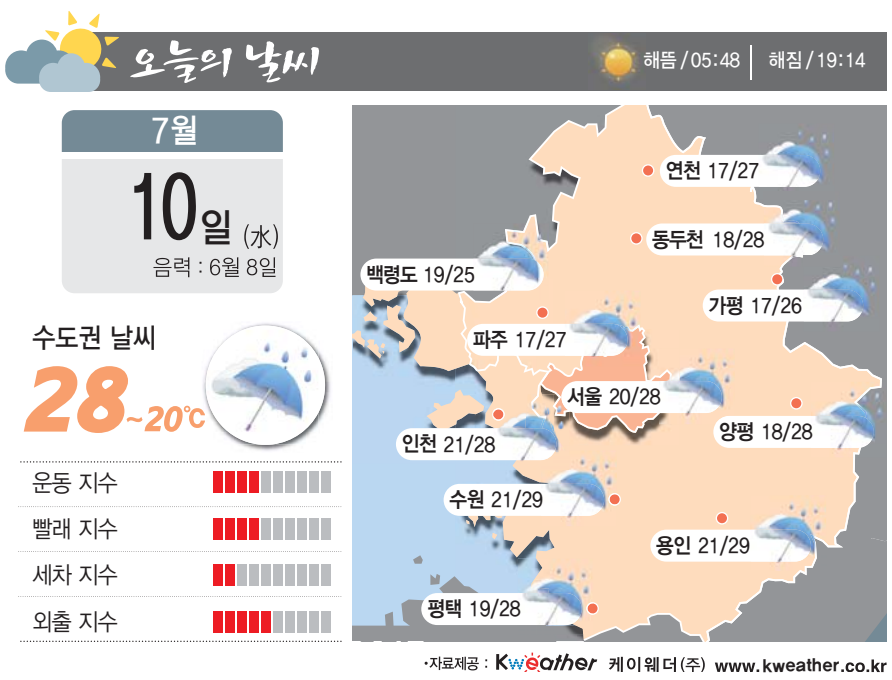
시는 아울러 지난 5월 정부의 환경개선펀드사업을 추진할 민간개발 사업자로 세진산업을 유치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세진산업 부지에 4층 규모의 물류시설과 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에는 총 960억원(국비 170억원, 민자 790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 착공, 2022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산업단지가 청년들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봉채영 기자 bcy2020@



여대생 36% "장래 출산계획 없다"

군산대학생, 취업 필수·결혼은 선택

지역 대학생들이 취업은 필수로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대학생과 함께하는 군산시 탐방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내 대학생들은 취업이 우선이고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대생의 35.4%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해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투어참여자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707명(남성 383명, 여성 324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이중 군산 출신자가 191명, 군산외 출신자가 515명(*1명 미응답)이었다.

결혼시기를 묻는 응답에는 30대 초반이 34.4%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이 25%, 연령에 관계없이 취직이후가 21.3%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취업 이후 또는 취업 후 안정단계인 30대에 결혼을 고려하고 있고 취업의 어려움으로 결혼도 자연스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경우, 2명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자리'와 '여성의 자녀양육부담(독박)'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춰지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부담(39.9%)과 함께 개인가치관 변화(39.3%)가 높게 나타나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도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직장(일자리)이 54.9%로 교육, 주택, 문화생활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가 지역 인구유입에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됐다.

금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자료는 향후 군산시 인구정책 수립과 시책 발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봉채영 기자